

역학				번호: J - B - 12	
제 목	국문	폐결핵 초치료 환자들의 치료실패 요인			
	영문	Factors of Failure in Primary Pulmonary Tuberculosis Treatment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경순 ¹⁾ , 조영하 ²⁾ , 전진호 ³⁾ 1) 국립마산결핵병원, 2)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Kyung Soon Kim ¹⁾ , Young Ha Cho ²⁾ , Jin Ho Chun ³⁾ 1) National Masan Tuberculosis Hospital, 2)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 목적 폐결핵 초치료 실패의 요인을 파악하여 초치료 실패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치료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다제내성 결핵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 2001년 동안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한 결핵 초치료 환자 중 치료 중단자를 제외한 치료 실패 환자 44명 전수와 치료 성공 환자 93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지 와 직접 면담조사를 통하여 개인 및 치료 관련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p> <p>3. 연구 결과 최초 결핵진단은 주로 증상이 나타나 병의원에서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으로부터 폐결핵 치료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던 환자의 비율과 치료순응도는 치료 실패군에서 성공군에 비해 낮았으며, Isoniazid (INH), Rifampicin (RFP), Ethambutol (EMB), Pyrazinamide (PZA)의 4가지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은 치료실패군에서 성공군에 비해 더 높았다. 치료 실패군에서의 다제내성결핵의 비율은 13.6% 였다. 흉부 X-선 상 최초 결핵 진단 시와 치료 후 6개월에서의 좌전폐 병소, 기관지협착증, 무기폐 등의 소견과, 공동성 또는 침윤성 병변의 잔존 또는 악화 례가 치료 실패군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p> <p>4. 고찰 결핵 치료에서 결핵 질환의 성상과 치료 과정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치료의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치료 순응도 증가는 치료 성공률 증가에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진단에서 흉부 X-선 상 기관지협착증이나 무기폐를 동반하거나 치료 후 6개월 시점에서 침윤성 또는 공동성 병변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치료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INH, RFP, EMB, PZA 등의 항결핵제에 대한 다제내성과 공동성 결핵 등 전형적인 초치료 실패와 관련된 요인을 지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항결핵제 변경과 보조적인 외과적 치료의 적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					